

## The Impact of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on the Carrier Barri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career education and career attitude

Kim, Tae Ke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 youth education, Sungsan Hyo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career education and career attitude in terms of the impact of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on the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thodology/Approach:** To investigate such a purpose, the study specified 1,197 multicultural adolescents as analysis subjects by using 8th year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indings/Conclusions:**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1)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school career education, and career attitude have a negative impact, as factors that impact career barriers. (2)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has a negative impact on career barriers, with school career education and career attitude serving as mediators. (3)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has an impact on career barriers, with the impact being made through the double mediation of school career education → career attitude.

**Key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school career education, career attitude, career barrier

---

**Corresponding Author:** Kim, Tae Ke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 youth education, Sungsan Hyo University

543, Seokjeong-ro, Namdong-gu, Incheon, 21503, Republic of Korea

ORCID: <https://orcid.org/0000-0002-7637-2981>

Email: [youth1@paran.com](mailto:youth1@paran.com)

Received: October 15, 2021 Revised: October 17, 2021 Accepted: October 17, 2021 Publication: September 30, 2021

##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김태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학과 부교수

**목적:**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진로지지와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방법론/접근:** 이러한 목적을 밝히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의 8차년도 데이터의 다문화청소년 1,197명을 분석대상하였다.

**결과/결론:** 첫째,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진로교육과 진로태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진로교육→진로태도의 이중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 진로장벽

---

**교신저자:** 김태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학과, 부교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ORCID: <https://orcid.org/0000-0002-7637-2981>

Email: youth1@paran.com

**투고일:** 2021. 10. 15.    **심사일:** 2021. 10. 17.    **게제확정일:** 2021. 10. 17.    **발행일:** 2021. 9. 30.

## I. 서론

청소년시기는 독립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하는 시기이다. 독립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해야하는 시기이다. 특히 비다문화청소년보다 다문화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학업 및 학교적응에 대한 어려움[17], 기초학력 부족[3],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10], 언어문화적 차이[7]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진로발달과 진로정체성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정체성을 갖는데 방해되는 내적·외적 요인이 진로장벽이다[12, 16]. 이 때문에 비다문화청소년보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6, 21, 26], 진로 장벽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2].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관련된 연구는 진로장벽 인식에 관한 연구[8, 22], 진로장벽 척도 개발[19], 진로장벽의 인과관계[1, 4, 9, 11, 12, 13, 14, 18, 20, 27]를 밝히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진로장벽의 인과관계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변인 연구로는 독립 또는 매개로서 진로장벽을 보는 입장의 연구들이다[4, 9, 11, 14, 18, 2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형하 외는[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위축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진로장벽은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은은[9] 진로장벽은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오혜경과 고미숙은[18] 진로장벽이 부모의 양육태도(감독)와 교사와의 관계 수준을 낮추고, 부모의 양육태도(방임)의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로장벽이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 관계를 통해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명형철은[11] 다문화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로장벽을 매개요인으로 연구한 김영미와 현안나는[4]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과 가족관계는 학교적응이나 진로장벽의 매개과정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성윤희와 장은영도[14] 진로장벽을 매개요인과 조절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로장벽을 결과변인으로 보는 입장의 연구들이다[1, 12, 13, 27]. 박동진 외는[12]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취동기와 학교적응의 원인변수와 매개변수의 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성취동기, 학교적응은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향상되어 간접적으로 진로장벽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선곡유화와 서우석은[13] 다문화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자존감, 자기효능감 및 대처효능감은 진로장벽에 직접적인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민선은[1] 학업적응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능력, 성취동기, 진로장벽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학업적응이 어려울수록 진로장벽 지각이 높고, 학업적응의 증가율이 낮을수록 진로장벽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진로장벽 관련연구는 선행변수 또는 결과변수로 혼재되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로장벽의 개념처럼 진로발달과 진로정체성을 갖는데 방해되는 내적·외적 요인이 진로장벽[12, 16] 이기 때문에 선행변수 보다는 결과변수로 살펴보아야 한다[13]. 실제로 진로장벽을 선행변수로 연구들을 살펴보아도 사회적위축[20], 진로결정성[4, 14, 20], 성취동기[20], 사회적지지[9], 학교적응[4, 9], 양육태도[4, 18], 진로태도[11], 문화적응스트레스[14] 등이 결과변수로 설정되어 있지만 선행변수에 더가까운 변수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결과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진로장벽과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주로 다른 변수들을 살펴보면 사회적요인, 진로관련요인, 가족요인, 문화적요인, 개인적 요인과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사회적요인으로는 사회적위축[20], 사회적지지[9, 13], 학교적응[1, 4, 9, 12] 등의 요인이다. 둘째는 진로관련 요인으로 진로결정성[4, 14, 20], 진로태도[11] 등의 요인이다. 셋째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4, 18] 등의 요인이다. 넷째는 문화적 요인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14], 한국어능력[1] 등의 요인이다. 다섯째로는 개인적 요인으로 자존감[13], 자기효능감[13], 대처효능감[13], 성취동기[1, 12, 20] 등의 요인이다.

이상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인과성 밝힌 요인들에서 몇가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진로관련 요인으로 모형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로관련 변수가 선행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진로장벽과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도 비다문화청소년과 동일하게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비다문화청소년과 동일한 학교교육과정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 등과 같은 학교진로교육이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는 다문화청소년 개인의 진로에 대한 태도에 관한 요인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진로태도를 고려한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의 인과관계를 다룬 명형철의[11] 연구는 진로태도 성숙을 결과변수로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어 선행변수로서의 진로태도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같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연구에서는 선행변수를 부모의 진로지지, 매개변수로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를 선정하여 진로장벽과의 인과적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진로지지와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진로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의 진로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는 매개하는가?

셋째, 부모의 진로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진로교육이 진로태도를 거쳐 이중매개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의 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8차년도 데이터는 2018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2019년 12월에 공개된 데이터로 공개된 데이터중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이다. 총 1,197명의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결측치는 26.8%로 높게 나타났다[28]

### 2. 측정도구

#### 가. 부모의 진로지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부모님 진로관련 행동으로 아버지 지지와 어머니 지지 각 3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아버지지지와 어머니지지 문항이 모두 동일한 문항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해준다', '나에게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해 준다',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해준다'로 1점 전혀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그렇다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분석 결과 아버지 지지 .890, 어머니 지지 .859로 나타났다.

## 나. 진로태도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의 진로태도는 결정성과 준비성의 두 영역으로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결정성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았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을 역코딩하였고, 1점 전혀그렇지않다에서 4점 매우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 결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833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성의 문항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을 역코딩하였고, 1점 전혀그렇지않다에서 4점 매우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 결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783으로 나타났다.

## 다. 학교진로교육

다문화청소년패널 8차년도의 학교진로교육은 학교진로교육과 학교진로교육참여만족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진로교육참여만족도는 ‘진로와 직업수업’, ‘창의적체험활동중 진로활동’,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직업인 멘토링’, ‘현장견학’, ‘대학교학과체험’, ‘현장 직업 체험’, ‘직업실무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참여 후 ‘1: 매우 불만족’에서 ‘5: 매우 만족’으로 점수화 하였으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진로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980으로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참여도는 ‘진로와 직업’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직업인 멘토링, 현장 견학, 대학교 학과 체험, 현장 직업 체험, 직업 실무 체험, 진로 캠프 진로특강 총 12개의 학교진로활동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합을 점수화 하였으면 1점에서 12점의 분포를 이룬다. 점수가 높을수록 12개 다양한 학교진로교육에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865으로 나타났다.

## 라. 진로장벽

다문화청소년패널 8차년도에서 다문화청소년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기이해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3개 영역 9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정보부족 문항은 총 4문항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로서 구성되어 있다. 총 3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보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진로정보부족의 신뢰도는 .862로 나타났다.

자기이해 부족은 총 3문항으로 '진로장벽: 자기이해 부족: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로서 구성되어 있다. 총 3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이해 부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이해 부족의 신뢰도는 .906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문항은 총 3문항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대학을 생각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원하는 학원(과외)에 다닐 형편이 안돼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로서 구성되어 있다. 총 4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어려움의 신뢰도는 .781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각각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상관관계분석, 팬텀변수를 적용한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적합도는 X2, GFI, AGFI, NFI, CFI, TLI, RMSEA, RMR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위한 재표집화 반복 횟수는 2,000회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 계산은 bias-corrected 방법을 선택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매개요인의 개별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가상의 변수인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각 매개변인을 통한 효과 추정과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 Ⅲ. 분석결과

#### 1.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성태제의[15] 주장에 따르면 다변량 통계분석을 위해 측정도구의 양호도 분석을 확인하기 위해 정규분포(normality),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 선형성(Linearity)과 잠재변수가 단 일차원의 속성을 측정 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 정규성 검증

정규성 검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절대값 3미만이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 나. 상관분석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 진로장벽 간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 부모진로행동_아버지_지지	1								
2. 부모진로행동_어머니_지지	.622**	1							
3. 학교진로교육참여	.137**	.117**	1						
4. 학교진로교육참여만족도	.236**	.207**	.951**	1					
5. 진로태도_결정성	.165**	.191**	.128**	.200**	1				
6. 진로태도_준비성	.128**	.163**	.168**	.183**	.287**	1			
7. 진로장벽_자기이해부족	-.147**	-.180**	-.084**	-.138**	-.642**	-.148**	1		
8. 진로장벽_진로직업정보부족	-.159**	-.188**	-.131**	-.216**	-.572**	-.129**	.717**	1	
9. 진로장벽_경제적어려움	-.196**	-.210**	-.037	-.102**	-.322**	-.065*	.479**	.552**	1

#### 다. 확인적 요인분석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은 추상적인 구성개념인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에 주로 사용된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 즉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법칙타당성(normological validity)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위해서 개별 측정변수들의 부하량을 통해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검증하는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도출하여 확인하였다. 법칙타당성(normological validity) 적합도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 1) 집중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간 경로에서 첫변수를 1로 고정하여 평균분산추출(AVE)와 개념신뢰도(C.R.)를 도출한 결과 <표 III-2>와 같다.

요인의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가 .9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ollen, 1989; Hair et al, 1998).

<표 III-2>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계수	평균분산 추출 (AVE)	개념 신뢰도 (C.R.)
	Estimate	S.E.	C.R.			
모_진로지지 ← 부모의 진로지지	1.000			.885		
부_진로지지 ← 부모의 진로지지	.894	.070	12.827***	.712	.949	.973
결정성 ← 진로태도	1.000			1.010		
준비성 ← 진로태도	.239	.029	8.162***	.296	.974	.983
진로직업정보부족 ← 진로장벽	1.000			.847		
자기이해부족 ← 진로장벽	1.073	.029	36.913***	.861	.970	.990
경제적어려움 ← 진로장벽	.630	.026	24.038***	.584		
학교진로교육참여 ← 진로활동	1.000			.839		
학교진로교육참여만족도 ← 진로활동	.462	.019	23.987***	1.159	.991	.995

##### 2) 판별타당성

본 연구에서 판별타당성을 분석을 위해 상관계수의 제곱값과 AVE값을 비교한 결과 <표 III

〈표 III-3〉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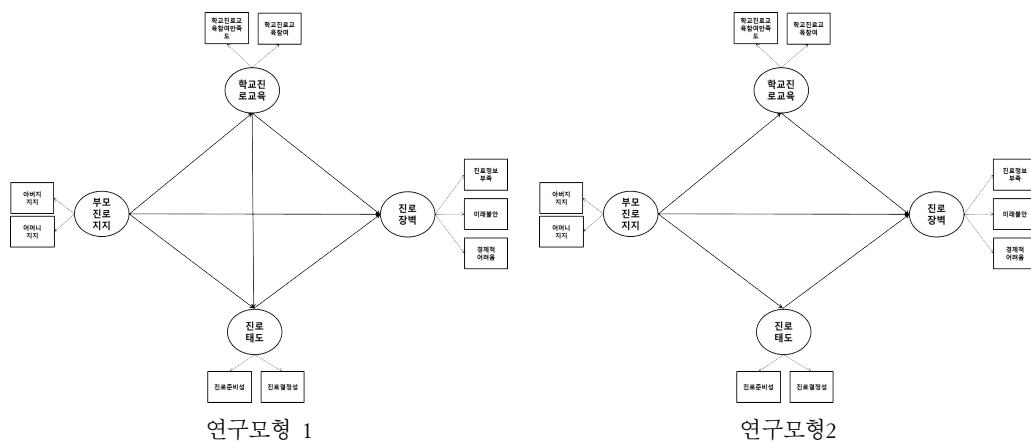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AVE
1. 부모진로행동_아버지_지지	1									.949
2. 부모진로행동_어머니_지지	.387	1								
3. 학교진로교육참여	.019	.014	1							.991
4. 학교진로교육참여만족도	.056	.043	.904	1						
5. 진로태도_결정성	.027	.036	.016	.04	1					.974
6. 진로태도_준비성	.016	.027	.028	.033	.082	1				
7. 진로장벽_자기이해부족	.022	.032	.007	.019	.412	.022	1			
8. 진로장벽_진로직업정보부족	.025	.035	.017	.047	.327	.017	.514	1		.970
9. 진로장벽_경제적어려움	.038	.044	.001	.010	.104	.004	.229	.305	1	

-3>과 같다. 모든 변수에서 AVE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모형검증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정하기 전 연구자가 설계한 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경쟁모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상대적인 검증 실시하였다.

연구모형1은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진로교육이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 모형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모형2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



(그림 III-1) 연구모형1과 연구모형2

는 영향에서 학교진로교육이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형으로 설정된 모델이다.

각 모형별  $\chi^2$  차이 검정과 적합도 지수들을 중심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GFI, AGFI, RMR, RMSEA, NFI, CFI, TLI 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1과 연구모형2를 분석한 결과 <표 III-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모형1과 연구모형2의  $\chi^2$  차이 검증을 살펴보면 연구모형1과 연구모형2 모두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에서 자유도가 1인 경우  $\chi^2$  값은 3.84로 모형의 자유도가 1 증가 하면서  $\chi^2$  값은 3.84보다 적게 증가한 모형이 더 우수하다(이학식, 임지훈, 2009).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한 결과 <표 III-4>와 같다. 모형1의 경우 270.091(d.f.=21), 모형2의 경우 355.389(d.f.=22)으로 모형2에 비해 모형1이 더 우수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2$  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타당성 충족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였다. 모형1의 적합도 수치는 GFI=.965, AGFI=.924, RMR=.049, RMSEA=.085, TLI=.953, NFI=.970, CFI=.972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적합도 수치는 GFI=.956, AGFI=.910, RMR=.070, RMSEA=.096, TLI=.940, NFI=.961, CFI=.963으로 모든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과 모형2의 적합도지수는 모두 충족하고 있지만 모형2보다 모형1의 적합도지수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1을 최종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III-4> 연구모형 비교 결과

구분	X <sup>2</sup> /d.f.	GFI	AGFI	RMR	RMSEA	TLI	NFI	CFI
모형1	270.091***(21)	.965	.924	.049	.085	.953	.970	.972
모형2	355.389***(22)	.956	.910	.070	.096	.940	.961	.963
판단기준	2이하	.9이상	.9이상	.05이하	.1이하	.9이상	.9이상	.9이상

### 3.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 가. 경로분석결과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III-5>와 같다.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장벽(B=-.103, p=.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긍정적 측면이 증가할수록 진로장벽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진로지지가 학교진로교육(B=.931, p=.001)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태도(B=.224, p=.001)에 정(+ )적인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긍정적 측면이 증가할 수 록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는 높이고, 진로장벽은 낮추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진로교육은 진로장벽( $B=-.017, p=.000$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진로교육은 진로태도( $B=.030, p=.000$ )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진로교육이 증가할수록 진로태도는 높이고, 진로장벽은 낮아지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는 진로장벽( $B=-.580, p=.000$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가 증가할수록 진로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5〉 경로분석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C.R.	P
	Estimate	S.E.	Estimate		
진로교육 ← 부모의 진로지지	.931	.137	.187	6.813	***
진로태도 ← 부모의 진로지지	.224	.033	.200	6.833	***
진로태도 ← 진로교육	.030	.004	.133	7.888	***
진로장벽 ← 진로태도	-.580	.061	-.660	-9.521	***
진로장벽 ← 부모의 진로지지	-.103	.027	-.104	-3.820	***
진로장벽 ← 진로교육	-.017	.003	-.084	-5.324	***
진로태도_결정성 ← 진로태도	1.000		1.010		
진로태도_준비성 ← 진로태도	.239	.029	.296	8.162	***
진로장벽_진로직업정보부족 ← 진로장벽	1.000		.847		
진로장벽_자기이해부족 ← 진로장벽	1.073	.029	.861	36.913	***
진로장벽_경제적어려움 ← 진로장벽	.630	.026	.584	24.038	***
부모진로행동_어머니_지지 ← 부모의 진로지지	1.000		.885		
부모진로행동_아버지_지지 ← 부모의 진로지지	.894	.070	.712	12.827	***
학교진로교육참여 ← 진로교육	1.000		.839		
학교진로교육참여만족도 ← 진로교육	.462	.019	1.159	23.987	***

#### 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매개효과를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첫째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진로교육과 진로태도의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는 경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적용한

변환모형을 활용하였고, 가설로 설정된 각 경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1)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진로교육과 진로태도의 전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III-6>와 같다. 부모의 진로지지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진로교육과 진로태도가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반복적 표본 추출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31].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95% 신뢰구간에서 살펴본 결과 <표 III-6>와 같다.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59로 나타났고, 학교진로교육과 진로태도를 거쳐 간접 효과는 -.122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 효과는 -.281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하한 값이 -.217, 상한 값이 -.051으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II-6> 전체 매개효과 분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효과			95% bias-corrected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lower	upper	sig.
부모의 진로지지	→ 학교진로교육 → 진로태도	→ 진로장벽	-.265	-.103	-.162	-.364	-.178	.001

2)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진로교육을 거쳐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부모의 진로지지 → 학교진로교육 → 진로태도 → 진로장벽)를 분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로 변환하여 신뢰수준 95%에서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진로교육과 진로태도의 이중 매개효과가 -.011로 나타났고, 이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 하한 값이 -.025, 상한 값이 -.034으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직접적인 영향

〈표 III-7〉 부모의 진로지지, 진로장벽에서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의 이중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이중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접효과	95% bias-corrected		
				lower	upper	sig.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진로교육 → 진로태도	진로장벽	.010	-.025	-.003	.010

을 미치는 동시에 진로지지가 학교진로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진로교육은 진로태도의 영향을 미쳐 진로장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진로지지와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밝히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의 8차년도 데이터의 다문화청소년 1,197명을 분석대상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은 낮아지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지지, 학교적응과 진로장벽간의 부적인 관계를 밝힌 김정은의[9]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장벽의 부적인 관계를 밝힌 오혜경과 고미숙[18],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의 부적인 영향을 밝힌 명형철의 [11] 연구와 같은 방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교육, 다문화청소년 개인의 진로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진로교육과 진로태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직접효과(-.159)와 학교진로교육과 진로태도를 거친 간접효과(-.122)의 총효과(-.265)로 인해 진로장벽을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진로에 관한 긍정적지지와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다양성, 진로에 관한 개인의 긍정적 태도 등이 동시에 작동했을 때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더 효과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개인, 학교, 가정에서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진로교육→진로태도의 이중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의 진로지지가 학교진로교육과 진로태도를 거쳐 진로장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 개인이 진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부모의 진로지지와 학교진로교육을 통해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선행변수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나 진로장벽의 경우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부모의 진로지지가 가능하도록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부모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가정 특성한 부모중 외국인 부모로 인해 부모스스로도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자녀의 진로지지에 비다문화청소년 가정의 부모님보다 더 소홀하거나 정보 등에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님의 국가, 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학교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진로교육의 경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에 의해서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구분없이 학교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다문화청소년과 동일한 접근보다 맞춤형 학교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개개인의 긍정적 진로태도를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진로관련 체험은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5, 25, 24). 다문화청소년 개개인이 다양한 진로관련 체험을 많이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진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밝혀둔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나이, 부모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1. 김민선 (2019).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 변화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8(4), 251-271. (Min Sun Kim. (2019). A Stud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in Academic Adaptation and Determina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8(4), 251-271.)
2. 김소라, 황영준 (2016). 고등학생 진로체험과 프로그램 평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167-190. (Sora Kim, Young jun Hwang. (2016). The Influence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and Program Evalu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9(2), 2016.6, 167-190.)
3.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Soon Gyu Kim. (2011). The Psycho-social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3), 2011.03, 247-272.)
4. 김영미, 현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49(0), 311-338. (Youngmi Kim, Anna Hyun. (2020). A Structural Analysis of Contextual Factors, Career Barrier,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9, 311-338.)
5. 김영애 (2020). 체험활동과 지역사회인식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활동연구, 6(2), 27-52. (Young-ae Kim. (2020). Experience activities and community awareness Influence of youth on career identity. Korean Youth Activity, 6(2), 27-52.)
6. 김영은, 정철영, 이건남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직업인식, 진로대안영역 및 직업포부. 한국 실과교육회지, 25(2), 169-194.
7. 김유경 (2011).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75, pp.45-62. (Yugyeong Kim. (2011). Multicultural Aspects of Family Change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75, pp.45-62.)
8. 김자경, 오혜정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진로결정성, 진로장벽 인식의 관계: 이주여성 어머니의 진로 관련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3(1), 1-26. (Ja Kyung Kim, Hye Jeong Oh. (2021). The Relationship of Bicultural Attitude, Career Decision-Making and Perceived Career Barrier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aternal Career-Related Behavior. Journal of Youth Welfare, 23(1), 1-26.)
9. 김정은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21-37. (Kim Jung Eun. (2020). Structural

-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Schoo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Science*, 31(3), 21-37.)
10. 남부현, 최충옥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117-137. (Nam, Bu-Hyun, Choi, Chung-Ok. (2012). A Study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117-137.)
  11. 명형철 (2018). 다문화초등학생의 진로장벽인식과 이중문화적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2(0), 105-132. (Myeong Hyeong Cheol. (2018).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Bicultural Self-efficacy on Maturity in Career Attitude for Multicultural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2(0), 105-132.)
  12. 박동진, 김송미, 이지연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학교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195-217. (Park, DongJin, Kim Songmi, Jiyoun Lee. (2020).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Adjustment -, *Korean Youth Activity*, 6(4), 195-217.) <http://dx.doi.org/10.36697/skya.2020.6.4.195>.
  13. 선곡유화, 서우석 (2021). 다문화 초등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 자존감, 자기효능감 및 대처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14(2), 73-100. (Seongok, Yuhwa, Seo Woo Seok. (2021).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oping Efficacy of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4(2), 73-100.)
  14. 성윤희, 장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43-64. (Yoonhee Sung, Eunyoung Jang.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decisiveness for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the mediational effect of career barriers and the moderated mediation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3(1), 43-64.)
  15. 성태제 (2008).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Seong, Taeje. (2008). Easy-to-understand statistical analysis. Seoul: Hakjisa.)
  16.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Sohn, Eun Ryung. (2001).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7. 양계민, 강경균, 김주영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 *한국청소년정*

- 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Yang, Kyemin, Kyoung-Kyoon Kang, Kim, Jooyoung. (2017). A longitudinal Study of Multicultural Youth and a study on support policies V. 2019 NYPI Annual Report.)
18. 오혜경, 고미숙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 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3), 285-292. (Hye-Kyung Oh, Mi-Suk Ko. (2021).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Barriers on Depress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eacher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6(3), 285-292.)
  19. 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5(11), 35-64. (Lee, A-ra, Son, Bo-Young, Lee, Ju-Young. (20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experience of Career barri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1), 35-64.)
  20. 이형하, 김지선, 김지원, 송현경, 최 은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위축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27(2), 183-184. (Hyoung-Ha Lee, Jee-Sun Kim, Ji-Won Kim, Hyun-Kyung Song, Eun Choi. (2019).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Withdrawal on Career Decis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27(2), 183-184.)
  21. 임경희 (2013). 초등학교의 다문화 여부와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와 진로흥미 및 진로인식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6(2), 67-89. (Kyunghee Lim. (2013). Differences in career interest, vocational aspiration, and career awareness of children by multi-culture and gende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2), 67-89.)
  22. 임양미 (2021).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장벽인식에 미치는 영향: 진로지원행동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79-94. (Lim, Yangmi. (2021). Relationships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s Parenting Efficac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Career Barriers: Mediating Roles of Career-Related Support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d Children's Sex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30(1), 79-94.)
  23. 장혜림, 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0), 189-218. (Chang, Hae-Lim, Lee, RaeHyuck. (2019).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7(0), 189-218.)

24. 전영욱, 김태한 (2020). 진로체험활동과 교사와의 진로대화가 중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3), 109-128. (Yeong-uk Jeon, Taehan Kim. (2020). Effects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and Career Conversation with Teachers on Career Decis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2(3), 109-128.)
25. 정지애 (2020).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3), 683-696.( Jiae Jeong. (2020). The Effect of Career Education and Career Experienc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Plann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21. 11(3), 683-696.)
26. 조봉환 (201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 초등상담연구, 11(2), 171-192. (Cho Bung Hwan. (2012). Career Interest and Career Awaren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1(2), 171-192.)
27.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3(2), 1-22. (Ha Yeojin. (2021). Patterns and Predictors of Career Attitude and Barriers among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A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Youth Welfare, 23(2), 1-22.)
2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1차-8차).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Data User Guide(1st~8th).)
29.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 Sons
30. Hair, J. F., R. 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31.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45.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32.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plications(pp.56-75). Newbury Park, CA: Sage.